

“류현진 있는 다저스 선발진, MLB 역대 10위”

CBS스포츠 평가... 그레인키 합류 휴스턴 선발진은 역대 3위
“선발진 성적·수상 성적 등 토대 작성했으며 ‘주관적’” 전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을 앞세운 LA 다저스 선발진이 메이저리그(MLB) 역대 10 번째로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라이브블 시대가 열린 1920년 이후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선발진 1~10위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 순위에서 류현진(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 워커 블러(10승 2패 3.22), 클레이턴 커쇼(11승 2패 2.77), 리치 힐(4승 1패 2.55), 마에다 겐타(7승 8패 4.37)로 이뤄진 올해 다저스 선발진은 10위를 차지했다.
CBS스포츠는 “최신 편향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렇지도 모르지만, 현재 다저스는 당대 최고의 정규리그 투수 커쇼, 최근 몇년 사이 최고 영건으로 꼽히는 블러, 올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의 강력한 후보인 류현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은 복귀를 준비 중이고, 짧은 시간 상당한 구위를 뽐낸 더스틴 메이(3승)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더해진다’면 다저스 선발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역대 순위에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잭 그레인키가 합류한 올해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발진은 3위를 차지했다. 휴스턴 선발진은 저스틴 벨렌더(15승 4패 평균자책점

2.82), 게릿 콜(14승 5패 2.87), 그레인키(11승 4패 3.08), 웨이드 마일리(11승 4패 2.99), 애런 산체스(5승 14패 5.60)로 구성돼 있다.
CBS스포츠는 “그레인키는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투수 중 한 명이다. 휴스턴은 미래 명예의전당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벨렌더와 그레인키를 보유하고 있다. 둘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며 “개개인이 이룬 과거의 성공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봤을 때 휴스턴 선발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재능있는 조합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CBS스포츠가 꼽은 역대 최고의 선발진 1위는 1998년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다.
당시 애틀랜타는 그렉 매덕스(18승 9패 평균자책점 2.22), 톰 글래빈(20승 6패 2.47), 데니 니글(16승 11패 3.55), 케빈 밀우드(17승 8패 4.08), 존 스몰츠(17승 3패 2.90)로 이뤄진 막강 선발진을 자랑했다.
2위는 샌디 쿠팩스(27승 9패 평균자책점 1.73), 돈 드라이스데일(13승 16패 3.42), 클라우트 오스틴(17승 14패 2.85), 돈 서튼(12승 12패 2.99)이 버틴 1966년 다저스 선발진이다.
4위는 드와이트 구든(18승 9패 3.19), 론 달링(17승 9패 3.25), 데이비드 콘(20승 3패 2.22), 밥 오페다(10승 13패 2.88), 시드 페르



지난달 19일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투구를 벌이고 있는 류현진.

난데스(12승 10패 3.03)로 구성된 1998년 뉴욕 메츠 선발진, 5위는 얼리 윈(23승 11패 2.73), 마이크 가르시아(19승 8패 2.64), 밥 레몬(23승 7패 2.72), 아트 휴트먼(15승 7패 3.55), 밥 펠러(13승 3패 3.09)로 짜여진 1954

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발진이 꼽혔다.
CBS스포츠는 “우리가 정한 순위는 선발진의 성적과 수상 성적, 포스트시즌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주관적이다”고 전제했다. /뉴시스

2차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30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

10월 9일부터 태권도원서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년 2차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이하 캠프)에 참가할 외국인 청소년(만 13~24세) 40여명을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진행된다. 캠프는 사전에 선정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국 14명의 해외참가자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소년 40여명을 선발해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태권도 수련생을 우대하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캠프에서는 겨루기와 품새 수련을 비롯해 태권도원 투어,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반디랜드 등의 문화탐방을 진행하며 특히 10월 12일과 13일에는 ‘2019태권도원경연대회 품새 부문’에 참가해 캠프 기간 동안의 수련 결과를 선보일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비롯해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우리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캠프 참가 신청은 30일까지이며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홈페이지 알람마감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국, 2027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추진

여자 축구 최강국인 미국이 2027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유치를 나선다. 카로스 코데이로 미국축구협회장은 13일(한국시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했다.

코데이로 회장은 “비전 2027이라는 이름 아래 세 번째 여자월드컵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축구협회 이사회 승인 과정이 남아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여자월드컵을 개최했다. 1999년과 2003년 연거푸 유치에 성공했다. 1999년에는 중국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2023년 개최권의 향방은 미국의 도전을 최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대회는 한국이 북한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2020년 3월 결정된다. 미국은 앞선 8차례 대회에서 4번이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뉴시스

내년 MLB 정규리그 3월27일

2020년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가 3월27일(한국시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MLB 사무국은 13일 내년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2020년 3월 27일 정규리그를 시작해 9월28일까지 팀당 162경기씩을 치른다. 월드시리즈는 10월21일 시작된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같은 날 개막전을 치르는 일이다. 30개 구단이 개막전을 동시에 치른 것은 1968년이 마지막이었다. 2018년에도 30개 구단이 같은 날 개막전을 하는 것이 1980년 이후 40년 만이다.

91회째를 맞는 내년 올스타전은 7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저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다저스타디움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1980년 이후 40년 만이다.

류현진의 소속팀인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5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뉴시스

제임스 VS 레너드 개막전 빅뱅... NBA, 10월 23일 개막

올스타전은 내년 2월15일 시카고서

2019~20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가 10월23일(한국시간) 개막한다. 로스앤젤레스를 연고지로 하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개막전부터 격돌한다. 르브론 제임스(레이커스)와 카와이 레너드(클리퍼스)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NBA 사무국은 13일 2019~2020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공개했다.

10월23일 막을 올리는 일전에서 디펜딩챔피언 토론토 랩터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첫 경기를 치른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스 유니폼을 입은 자이언 윌리엄슨의 공식 데뷔전이다.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경기는 바로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로스앤젤레스 연고지 팀들의 맞대결이다.



르브론 제임스

지난 시즌 토론토의 우승을 이끌었던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레너드가 클리퍼스로 이적한 뒤, 처음 치르는 경기다. 레이커스를 이끌고 있는 ‘킹’ 제임스와의 첫 대결이다. 클리퍼스는 레너드 외에 정상급 포워드 폴 조지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레이커스는 미국



카와이 레너드

국가대표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왔다. 제임스와 레너드의 대결로 압축되는 레이커스-클리퍼스 경기는 크리스마스에도 열린다. NBA 사무국의 기대감이 엮보이는 매치업이다. 올스타전은 내년 2월15일 시카고에서 열린다. /뉴시스

2019년 8월 15일
또 다른 광복절

대한민국 광복 74주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던 힘은
과거와 현재 모두
보통사람들의 연대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제389호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출처: 문화재청